

사 례 발 표

농산물을 이용한 천연염색 활용사례

김 인 숙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천연염색은 천연자원의 재활용이며 인간이 자연과 함께 공존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친환경 자연주의를 실천하는 한 방법임에 틀림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에서 자라는 야생초나 들풀, 우거진 산림속에서 얻을 수 있는 나뭇잎과 수피, 뿌리나 열매까지 말 그대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염료를 이용하여 재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것이 다시 자연으로 되돌아 가는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생존을 위해 대량으로 버를 심고 수확하기 시작했던 청동기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천연자원을 활용한 천연염색도 자연에서 채취하는데 그 한계가 있고 일정 식물염료의 경우 야생하던 종들이 멸종되어 찾고 싶어도 얻을 수 없는 한계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유로, 특히 우리의 전통 천연염색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쪽과 홍화를 마을단위에서 염색을 위한 염료작물로 심고 수확하여 농가 소득과 연결시켰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천연염색을 접하게 된 것은 불과 4년전, 천연염료 전문지도연구회에 가입하고 부터입니다. 생활지도사라면 대부분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관심보다는 업무와의 연관성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워서 일선 지도사업에 응용해보고자 했던 욕심이 더 앞서 이 연구회에 가입했다고 해야 솔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천연염색과의 인연이 근무지를 당진군에서 평택시농업기술센터로 전출오고 2001년 시자체 신규사업으로 “천연염색 시범마을 조성”이라는 사업이 확정되면서 더 깊어졌습니다.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물들이는 일에만 몰두해온 염색장인들이 계시는데 너무 겁 없이 일을 벌여놓는 것은 아닌가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천연염색을 알기위해 눈만 감으면 그 생각을 하곤 했지만 마음만큼 여건은 따라주질 못했습니다. 다른 업무와 중복되어 업무시간에는 그 일에 매달려야 했고 아직 어린 아이들 때문에 휴일이나 늦은 야간시간까지 염색에 전념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힘닿는 대로 노력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직접 쪽을 심어 거두고 니람을 만들기 위해 독에 담아 놓았던 쪽들이 제 시기에 건져내지 못해 다 썩어버렸던 일, 석회를 잘못 사용해 생석회를 넣다가 화상을 입을 뻔 했던 일, 홍떡을 만들어놓고 출장

다녀오고 보니 몽땅 썩어서 버려야 했던 일 등 이모양 저모양으로 흉내도 많이 내보고 자료도 찾아보며 나름대로 염색에 대한 공부도 하고 농촌생활연구소에서 실시되었던 천연염색전문반 과정에도 참여했지만 모르는 것 부족한 것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이 천연염색은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어려운 점들도 많았습니다. 염색을 할 때 마다 새로운 색이 나오는 기쁨과 황홀감 이면에는 조금 안다 싶으면 더 깊고 난해한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벌써 독일이나 일본, 동남아 등지에서는 천연염료를 대량재배해 염료상품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늦긴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천연염료만을 생산해 내는 염료재배 단지조성은 천연염색사업의 과급속도를 볼 때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연염색시범마을 조성!

시비 100%, 2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막상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참 난감했습니다. 새로 전근한 곳이라 농업인들을 잘 알지 못했고, 또한 아직까지 평택시에는 천연염색 전시회나 교육 등 천연염색과 관련된 문화행사가 개최된 적이 없어 그 분야에 대해 너무 서먹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난관은 아무도 이 사업의 성공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선뜻 사업신청을 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는 일!

생활개선회 연시총회 때 사업의 동기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어려운 점들을 말씀드렸더니 3개면의 생활개선회에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두 곳은 염료작물재배여건이 좋지 않았고 또 한곳은 작물재배여건도 좋고 신청한 단체의 단결력이나 추진력으로 보아 가능하리란 판단이 섰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하고 쪽, 홍화, 메리골드 재배법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4월 말경이라 쪽이랑 홍화를 심기에는 늦은 감도 있었고 그해 봄이 워낙 가물어서 스프링클러를 밤낮으로 돌리며 모종을 심고 애쓴 덕인지 홍화는 장마전에 수확을 하여 600평에서 생꽃잎으로 50kg정도를 수확했고 쪽밭 250평과 메리골드250평에서도 8월초부터 수확하여 쪽은 니람으로 100kg 정도, 메리골드도 생꽃으로 200kg정도를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염색기술을 익히기 위해 사업비 중 6백 만원을 교육재료 비목으로 세워서 11회에 걸쳐 염색실습도 하고 천연염색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있는 영천시농업기술센터에 견학도 다녀왔답니다.

참여한 회원들은 다른 작물보다 소득이 높을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아직 염료 판로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염색교육을 받으며 농사짓는 일까지 겹쳐 이 일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않았습니다.

염료를 재배하고 또 그것을 수확하여 가공하고 염색을 하기까지 그 어려움이란…!

처음에 쉽게만 생각했던 참여회원들은 고달프고 힘든 이 일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저에는 뜨거운 8월의 태양이 얼마나 고맙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쪽풀을 베서 담그고 색소를 뽑아 니람을 만들고 또 그것으로 염색을 위한 발효를 할 때는 필수적으로 30℃를 윗도는 불빛 태양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땀을 흘린 결과 2001년 11월에 개최된 평택농업농악축제시 북부문예회관에서 3일 동안 천연 염료가공품, 염색직물, 염색된 직물로 만든 의류 등 140여종을 전시하여 200여 만원의 상품 판매 소득을 얻었고 평택시민들에게 천연염색사업을 보급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천연염색시범마을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02년 3월 평택꽃전시회기간에도 4일간에 걸쳐 제 2회 전시회를 가졌고 9월말 현재 홈페이지(www.ndtown.co.kr : natural dyeing town)를 통해 생쪽, 니람, 홍화, 잣물 등 천연염료와 염색된 직물 판매액은 1천200백여 만원이 넘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알린 천연염색체험학습 프로그램 소식을 보고 천안, 용인, 부천 등 전국에서 희망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뜻이 있는 회원 20여명이 천연염색연구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올 11월1일부터 시작되는 2002평택농업축제기간에 천연염색 소품전시회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천연염색마을 홈페이지로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홈페이지 경진대회에 홍보분야로 참가하여 우수홈페이지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천연염색마을에서는 자부담으로 홍화와 쪽을 800여평 재배하여 200여명을 대상으로 쪽과 홍화를 채취하는 것부터 염색까지 하는 체험학습을 실시하였고 수확한 염료는 니람과, 홍떡으로 가공을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좋은 염료생산을 위해서는 정확한 염료사용법과 염료의 효율성을 알아야하기 때문에 염색마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염색기술을 꾸준히 익혀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좋은 염료생산은 농업과 농업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천연염색은 농업과의 연관성을 배제시킬 수 없다는 것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통방법에 근거한 홍떡과 연지, 니람을 만들기 위해 시비 1천원만을 확보하여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어려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저 자신이 천연염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농업기술센터내에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기엔 장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의 천연염료 시장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시험연구비를 세울 때는 대학이나 산업체에 위탁의뢰를 하고자 세운 것이었지만 공식 절차를 거쳐 시험연구 위탁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고 남에게 맡기기보다는 내가 먼저 시도해보고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1단계 사업부터 차근차근 시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염료를 가공하고, 2단계에는 가공된 염료를 이용한 염색실험, 3단계로 염색된 직물의 견뢰도 검사와 만들어진 염료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순서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남들이 만들어놓은 100가지 자료보다 내가 직접 얻어낸 1가지 데이터가 바로 내 자신의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천연염색을 농촌지도사업으로 접목시키면서 영천시농업기술센터의 김정화선생님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추진했던 시험연구개발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라고 하기에는 미흡하지만 중국산 홍화와 국산 홍화, 홍떡을 이용한 염색도 차이, 홍화와 홍떡을 이용한 연지제조의 수율, 종류가 다른 영양원을 첨가했을 때 반응하는 니람발효도의 차이 등 내용면에서 크게 내세울 것은 없어도 이 일을 통하여 저 자신이 천연염색이라는 분야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는 자부심과 이를 이용하여 어떻게 농업인들에게 적용할 것인가에 마음이 부풀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선진국들의 염료시장을 벤치마킹하여 더욱 다양한 염료상품의 개발을 위한 연구에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고품질의 염료생산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만들어진 염료의 시장성 확보를 위한 포장개발과 차별화된 브랜딩까지 첩첩산중이라고 해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지금까지 제가 추진해 왔던 천연염색사업을 소개해드렸지만 천연염색 분야에서 지금 첫 걸음마를 하고 있는 있는 저에게 이번 학술대회에서 사례발표를 하게 된 것은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는 당부로 알고 더 정진하겠습니다.

또한 천연염색마을을 통해 우리 땅에 자란 쪽과 홍화로 만든 니람과, 홍화, 홍떡, 연지 등 천연염료가 세계적인 염료상품이 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